

# 三國時代 및 新羅時代의 袴에 관한 小考

## — 袴形態에 따른 用途區分에 대하여 —

金 惠 全\*

I. 序 言  
II. 三國時代의 袴

III. 新羅時代의 袴  
IV. 結 言

### I. 序 言

古代로부터 現代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어온 바지는 크게 閉股袴와 開股袴로 양분할 수 있다. 閉股袴는 현금의 남자바지, 여자의 속곳, 단속곳, 너른바지 등이며 開股袴의 대표적인 예는 여자의 고쟁이와 處容舞服의 男袴가 있다. 같은 閉股袴 또는 開股袴라 해도 그 形態는 各樣이다. 본고는 이와같이 바지를 크게 양분하면서 그 形態를 비교 관찰하여 그 차이를 찾고 용도를 구분하려 한다. 문헌상에서 보아도 바지를 표현한 어휘는 상당히 다양하므로 각 어휘에 해당하는 형태는 어떤 것인가 알아보는 것도 의복변천사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리라고 본다. 현재 遺存되어 있는 바지는 남자바지와 女服 下衣의 襯衣類인 (속)속곳, 고쟁이, 단속곳 등이 있다. 바지란 用語는 남녀공통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國語辭典(文世榮著, 新韓出版社, 1945)에 「바지」 아래뚜리에 입는 옷·겹바지, 솜바지의 구별이 있고 남자용 여자용에 따라 짓는법이 다르다고 했고 새사전(홍웅선·김민수 공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발행, 1959)에는 「袴衣」 사내 홀바지=속곳·單袴·單衣·中衣라 풀이하고 있다. 위에서 바지는 대체로 겹이며 袴衣는 홀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中衣란 어휘는 현재도 각 지방(전라도, 충청도, 제주도에서 확인)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핫중의, 단중의(단속곳), 고장중의 혹은 가래중의(고쟁이), 제주도의 갈중의(단속곳 모양)가 있다. 전라도 속담에 “가래중의가 뒤집혀지면 訟事간다”고 하여 뒤집어진 가래이의 前後左右가 대단히 가리기 힘들다는 것을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다. 현 바지의 명칭은 알 수 없으나 鄭麟趾의「把持」까지 밖에 溯源할 수 없으므로, 현재의 명칭은 李朝初에 이미 고정된 것 같다<sup>1)</sup>. 또한 日本의 山袴(몸뚱이)가 고구려벽화의 女袴와 닮

\* 文理科大學(大田) 家政教育科 助教授

1) 金東旭, 增補 韓國服飾史研究, 亞細亞文化社, 1979. p. 14

있고 단속곳의 形態가 日本 하카마에 遺傳되고 있음은 매우 흥미있는 일로서 양자의 구성방법을 비교 고찰 함으로써 服飾文化的 傳來 여부, 相關관계도 약간은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고구려 벽화의 자료 이외에 朝鮮朝 이전의 실물이 없는 까닭으로 이에 관한 연구는 상당한 어려움에 부딪칠 것으로 여겨지며 위험한 추측으로 그칠 염려도 없지 않다.

앞으로 이에 관한 자료 섭렵과 고려이후 조선조시대의 바지에 관한 연구는 훗날의 과제로 미루겠다.

## II. 上古, 三國時代의 바지

문헌상 最古의 袴로서는 三國遺事 卷第二의 駕洛國記에 나오는 綾袴가 있다. 이 가락국기에 金官伽耶의 시조인 金首路王(A.D. 42—199)이 上帝의 계시로 고대 인도 왕국인 阿踰陀國의 公主인 許氏를 왕후로 맞이하는 장면에서 왕후가 海岸에 상륙하여 입고 온 綾袴를 벗어 山靈에게 바치는 내용과 모국을 떠나올때 錦繡綾羅, 衣裳疋段, 金銀珠王, 瓊玖服玩器 등 많은 보물들을 가져 온 내용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sup>2)</sup> 이것이 建國神話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빙할 수는 없으나 당시에 西方과의 문물 교류가 있었음을 암시해 주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된다. 그 다음 시각적인 資料로 고구려 古墳벽화가 있다. 즉 무용총 주방의 시녀(그림 1)를 비롯한 몇몇 남녀의 의복에서 폭이 대단히 넓은 寬袴가 보인다. 그 구체적인 봉재방법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바지부리에 개더를 잡아 주었을 것이다. 이러한 실루엣의 복장이 西域系 즉 페르샤 등지의 복장에 공통되어 있음은 대단히 흥미있는 일로서 唐代의 이 지역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면 通典 焉耆條에



그림 1. 무용총 주방 시녀

은 보물들을 가져 온 내용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sup>2)</sup> 이것이 建國神話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빙할 수는 없으나 당시에 西方과의 문물 교류가 있었음을 암시해 주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된다. 그 다음 시각적인 資料로 고구려 古墳벽화가 있다. 즉 무용총 주방의 시녀(그림 1)를 비롯한 몇몇 남녀의 의복에서 폭이 대단히 넓은 寬袴가 보인다. 그 구체적인 봉재방법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바지부리에 개더를 잡아 주었을 것이다. 이러한 실루엣의 복장이 西域系 즉 페르샤 등지의 복장에 공통되어 있음은 대단히 흥미있는 일로서 唐代의 이 지역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면 通典 焉耆條에



그림 2. 焉耆의 婦人 衣襦着大袴(唐代의 服飾) 第二編 圖版 三六, 3

「婦人衣襦大袴」<sup>3)</sup> (그림 2)

라 있다.

焉耆는 지리적으로는 지금의 터키스탄(新疆省)에 해당하며 이란계 민족이다. 그림 2의 襦와 大袴는 고구려 벽화의 복장과 동일하다. 고구려 安岳 제 3 호분 後室東壁의 무용도에서 특히 그 舞人은 그 새파란 눈과 유달리 큰 코로부터 西域人으로 추측되는데 이 古墳의 연대는 서기 357년이 고블교가 고구려에 流入된 연대는 서기 372년이란 점에서 西域의 舞人이 불

2) 一然, 三國遺事, 卷第二, 駕洛國記

3) 杜佑撰, 通典, 邊防 新興書局發行

교 流入 이전에 벌써 韓土에 존재하였다는 의미에서 이 후실의 변화는 주목을 끈다.<sup>4)</sup> 이외에도 고구려의 音樂, 樂器 등의 風物이 西域의 영향을 적잖게 받고 있었음은 여러 論文에 보이는 바와 같으며 당시의 왕래 루트가 북방을 통해서였는지 또는 해로를 이용했는지 알 수 없으나 이때에 양국의 기타 문화풍물의 交流도 충분히 이뤄졌으리라 생각한다면 服飾의 영향 또한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애당초 우리 민족은 北方 우랄 알타이계의 통구스족이므로 우리 古有의 복식이 북방 胡服인 窄袖 窮袴였음을 변화의 복식으로부터 알 수 있거니와 그후 細袴가 寬袴의 形態로 변천하는 데는 諸民族間의 文化交涉, 특히 西域과의 交流결과로 말미암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寬袴의 形態는 이미 고분시대에 國俗化했음을 알 수 있다. 中國의 경우 袴는 趙의 武靈王시대부터 성히 이를 수입하여 이후 歷朝歷代 王侯의 畋獵服과 武人服이 되었으며 그들의 기록에는 항상 袴褶이라 並書되어 있는 것을 본다.<sup>5)</sup> 그들은 胡服을 愛用하면서도 魏志 崔琰傳에 보면 文帝가 皇太子의 時 田獵에 袴褶을 着用한 것을 諫한 말에, 袴褶을 「虞旅之賤服」이라고 멸시한 기록이 있다.<sup>6)</sup> 袴褶은 中國人들 중심으로 보면 胡服이기 때문이다. 胡服은 外民族 服飾이란 뜻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중국 邊境에 접해있는 外民族 즉 北胡나 西胡 민족의 의복을 胡服이라 칭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고유한 의복을 北方 胡服이라 부르지 말고 보다 적합한 용어를 찾아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三國時代 袴에 관한 우리나라 문헌에

王服 紫大袖袍 青錦袴(三國史記 百濟本記)  
 十年 賊起國南 赤其袴以自異 人謂之赤袴(三國史記 新羅本記 眞聖女王)  
 …憩於高嶠 解所著 綾袴爲贊…(三國遺史 駕洛國記)

라 있고, 중국 諸史書에

下曰長袴要有銀帶(翰苑, 高麗)  
 高麗俗服窮袴冠折風( // )  
 大口袴素皮帶黃革履(隋書東夷高句麗)  
 大口袴(北史 列傳 高麗)  
 袴大口(唐書 東夷 高麗)  
 男子褐袴(新唐書 東夷 新羅)  
 高麗樂工人…黃大袖…大口袴…裙襦黃 赤黃袴(唐書 音樂二 高麗樂)  
 襦曰複衫 袴曰褌(梁書 東夷 百濟)  
 袴曰柯半(梁書 東夷 新羅)

라 있어 각각 그 색과 재료 및 형태를 표현하고 있다.

4) 李惠求, 安岳 第三號墳壁畫의 奏樂圖, 震檀學報 第二十三號 p. 23  
 5) 李如星, 朝鮮服飾考, 서울: 白楊堂, 1947. p. 127  
 6) 原田淑人, 漢六朝의 服飾. 東京: 東洋文庫, 昭和11年 p.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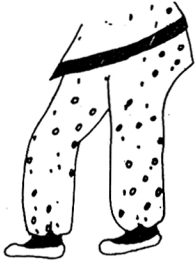


그림 3. 舞踊塚  
(舞踊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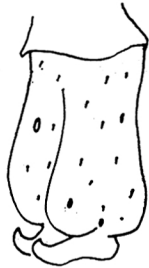


그림 4. 雙楹塚  
(貴人像)



그림 5. 舞踊塚  
(主人과 손님)



그림 6. 백제 梁織  
工圖

즉 赤, 赤黃, 靑錦은 색깔을, 靑錦, 綾, 褐은 재료를, 長, 窮, 大口, 禪은 그 형태를 보여준다. 이상에서 볼 때 三國時代의 바지는 색이 다채롭고 재료도 綾錦 등의 고급 비단으로부터 褐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며 그 길이도 장단이 있었고 입이 큰 大口가 있는 한편 禪과 같은 잠방이 형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다양한 형태의 바지를 고구려 벽화에서 구별해 보면,

1. 가랭이 폭이 좁은 窮袴를 侍者 또는 武人이(쌍영총 행렬도, 무용총 무용도(그림 3) 등)
2. 가랭이 폭이 넓은 寬袴를 貴人級이(쌍영총 귀인상(그림 4), 기마상의 **남자**, 무용총 주방의 시녀 등) 입고 있다. 또한
3. 가랭이 폭이 좁은 파자마형(무용총 主人과 손님, 기마인물도, 쌍영총 主室 北壁夫婦像, 修山里壁畫古墳 두 남자)과
4. 가랭이 폭이 넓은 파자마형(백제 梁織工圖(그림 6), 章懷太子 李賢묘벽화 중 賓客圖의 우리나라 使臣)이 있으며
5. 무릎길이의 禪(三室塚 第三室東壁의 壯丁, 通溝四神塚 羨道の 力士 등)이 있다.

李如星은 그의 조선복식고에서 1을 寬袴라 이르고 2를 細袴 또는 窮袴라 이름에 대해 李京子는 窮袴란 밑바대(襠)가 달린 바지를 이름이지 결코 바지폭의 廣狹을 구별해 말한 것은 아니라<sup>7)</sup>고 논술하고 있어 이의 호칭이 부당함을 말하고 있다. 몽고 노인·우라 발견의 유물인 바지를 무용총 舞人의 바지와 비교해 볼 때 밑바대의 부착된 모습과 바지부리를 주름 잡아 가는 別布로 봉합한 것, 가랭이폭이 넓지 않은 것등에서 동일한 것을 볼 때 양자는 동일한 계통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翰苑에 高麗俗服窺袴란 말은 襠이 달린 폭좁은 바지라 생각해도 틀림은 없을 것 같다.

3, 4형은 부리가 열린 점이 공통이고 부리에 別色布의 有無와 폭의 寬狹의 차만 있을 뿐이다. 3의 용도는 주로 平居시, 騎馬시, 씨름 등에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으며 4형은 두 경우 모두 使臣들이 입은 것을 볼 때 儀禮用으로 사용했을 것이다.

唐高祖 武德七年의 衣服令에 天子와 皇太子의 衣次에 白袴가 있고 武辨者를 비롯한 進賢冠, 委貌冠, 平巾幘者의 의복엔 모두 大口袴가 포함되어

7) 李京子, 高句麗壁畫服飾의 研究, 梨大論叢

있는데<sup>8)</sup> 唐代 武士俑의 바지를 보면 바지 부리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아 大口袴의 부리 形態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日本의 경우에도 大口袴를 약해서 大口라 하고 束帶의 表袴 속에 着裝한다 하여 下大口라 하며 表裏가 紅地이기 때문에 赤大口라고도 한다. 또 平安 初期에는 表袴를 大口袴라고도 하는데 이것 역시 바지 부리가 열린 모양이니 이러한 사실을 근거하여 백제의 梁織工 圖 使臣이나 章懷太子묘에 묘사된 우리나라 使臣의 바지를 大口袴라 推測해보나 확인하기는 어렵다. 또 樂學軌節 武舞工人所着의 豹文大口袴는 위의 例와는 달리 부리가 막혀 있어서 大口袴의 바지부리의 형태에 대해 다시 혼란이 오는데 이는 袴의 下端에 襪이 連合되어 있는 까닭이 아닌가 한다. 당시의 禪의 형태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현대까지 착용한 쇠코잠방이는 襠이 달린 閉股袴(그림 7)로서 日本式 禪의 形態와는 구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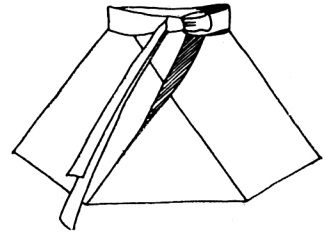


그림 7. 아동용 깨끼바지(잠뱅이식) 조선시대. 온양 민속 박물관소장

이상 고구려벽화에 나타난 1, 2, 3, 4, 5型중에서 寬袴를 제외한 모든 바지는 남자만이 착용하고 있으며 이상 모든 바지가 三國時代에 이미 土着化한 우리 고유의 의복이라 하겠다.

김동욱교수는 그의 衣袴着用民族의 日本支配族說에서 日本人이 3세기경까지 입고 있었던 貫頭衣, 橫幅衣가 없어지고 그 복식이 韓族의 복색一色으로 변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논술하고 있다. 즉 3세기경 三韓이 백제, 가야, 신라로 북방족이 남하해서 왕조국가를 형성할 마당에 수십개의 피정복 위기에 놓여 있는 부족의 酋長들이 바지 저고리를 입은 자기 겨레들을 데리고 대량으로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의 지배자로 군림하였으므로 4, 5세기부터 7, 8세기까지 한국 복색이 일본 전토에 퍼지게 되었다. 그러나 한반도 복식의 여러 양식이 혼합해서 영향을 받게 되므로 고구려식, 가야식, 신라식 등이 혼용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하니와의 복식이 바로 韓半島의 복식이란 것을 알면 이것을 우리 복식 고증에 참고해도 당연한 것이라 결론이 나온다.<sup>9)</sup> 日本의 袴類 중에 가장 古制를 遺存하고 있는 것은 山袴로서 이것은 지방 농산촌에서 작업복으로 쓰이는 一群의 지방적 袴가 되어 몸매, 가루산이라고 불러 현재도 널리 착용되고 있으며 그 형태, 명칭, 재료, 착법, 기능 등이 특이한 점이 있어서 日本袴의 起原, 原流를 고찰하는데 중요하다. 또 長野懸 木曾地方의 가루산의 襠은 현재 奈良의 正倉院에 傳存해 있는 奈良시대의 禪襠과 똑같은 一尺 四方의 角襠이고 이 정방형의 襠은 다시 조선부인 裡衣의 原形 長方形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sup>10)</sup> 日本 奈良朝 持統天皇 四年에 上下를 통하여 白袴(그림 9)를 쓰도록 詔書가 있다. 이것은 禪(그림 8)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 생

8) 原田淑人, 唐代の服飾 참조.

9) 金東旭, 전제서 p. 10, 11

10) 宮本馨太郎, 民俗民藝 雙書 24. 岩崎美術社, 1975, p.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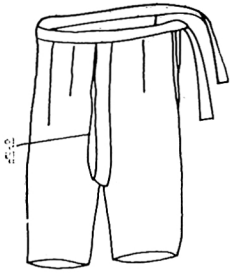


그림 8. 禪 推想圖  
日本衣服史 p. 40



그림 9. 白袴 日  
本の服裝(上)



그림 10. 表袴 日本  
衣服史

각되며 이것이 발전하여 大袖中心시대(平安후기, 鎌倉, 室町시대)에 文官 禮服으로 사용된 表袴(그림 10)가 되었다. 이것은 最上에 입는 바지로 表 白裏紅을 상례로 하며 좌우 2폭씩의 4폭으로 하고 白絹無文으로 만들며 내리밧이라고 하는 긴 밧이 달린 것이 곧 한국 여자 바지와 同樣이다. 북한지방에서 이 바지는 역시 흰 목면에 裾口의 裏에는 꼭 목면이면서 紅衣片을 붙여서 이것을 뒤집어 홍색이 보이게 입고 있다. 이 表袴 역시 禪式 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생각할 때 거기엔 깊은 양자간의 교섭을 생각할 수 있다.<sup>11)</sup> 일설에는 表袴가 唐制의 白袴로부터 발달했다는 설이 있으나 중국의 역대 역조왕들이 胡服인 바지를 取擇했음이 기록에 나와 있고 胡服은 우리 고유한 의복이니 上古 및 三國시대의 우리 선조들은 그림에 보이는 白袴와 같은 바지도 입고 있었고, 股가 열린 日本式 잠방이(禪)도 착용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 Ⅲ. 新羅時代의 바지

신라는 29대 무열왕 30대 문무왕에 이르러 통일과업을 완수하게 된다. 이즈음의 袴에 관한 사료로는 三國遺事 卷一 太宗 春秋公條에

後旬日庚信與春秋公 正月午忌日  
蹴鞠于庚信宅前 故踏春秋之裙 裂其襟紐

라 있어 李 如星은 1. 남자가 착군했다는 것 2. 더구나 축국회에 착군했다는 것에 의심하여 三國史記(新羅本記 文武王上)에

庚信與春秋公蹴鞠因踐 落春秋衣紐 因與俱往宅...

이라 있음을 들어 三國遺事に 오류가 있는 것 같이 보고 있다.<sup>12)</sup>

그러나 이 裙은 處容舞에서도 裙이란 이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남자 着裙의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보인다. 處容說話는 신라 제49대 憲康王(875—886)代로부터 유래하며 처용무 또한 이때부터 시작하여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궁중 儺禮와 宴禮에 일종의 舞劇으로 전승되어 왔고 처용무와 습설하는 蓮花臺舞는 중국에서 약 2C 경에 발생했는데 우리나라에 어느때부터 전해졌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고려사 71 志 樂 25에 연화대에 관한 기록

11) 永島信子, 日本衣服史, 藝艸堂, 昭和八年, pp. 227~230

12) 李如星, 전계서

이 나오고<sup>13)</sup> 그 袴이 처용무복과 同制이므로 이 두 舞服을 신라 시대의 제도를 충분히 詳考할 수 있는 자료라 보고 그것을 분석해 보면 바지는 다시 袴과 袴로 나뉘며 양자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다.

	명칭	착용인	착용時	재료	구조	비고
袴	袴	男	처용무	紅段, 黑段 藍段	발목에 많은 주름이 있고 몸에 모양	허리말에 어깨끈이 달림
	襪 袴	女 技		白羅, 紅綃		
	襪 袴	童 女	연화대	紅 綃		
袴	豹文大口袴	武舞工人	雅樂	白 紬	발목에 주름 이 없고 下端 에 襪을 連結	
	袴	樂師, 差備 文武舞工人	雅樂	白 紬		

※ 이상의 자료는 樂學軌範에서 발췌함.

즉 袴(그림 11)는 雅樂時 文武舞工人이 착용하고 비교적 저급 비단인 白紬를 사용했으며 下端이 홀쭉하여 襪이 연결된 데 비해 袴(그림 12)은 처용무, 연화대무에서 남녀공용으로 입었고 上下에 모두 풍부한 주름이 잡혀있으며 段羅綃 등의 다채로운 고급비단을 사용한 것을 보면 袴이 袴보다 좀더 儀禮的인 용도로 사용된 흔적이 보인다.

蹴鞠은 중국 고대에 武藝練習을 위하던 유희로서 기원을 黃帝에 부쳐 말하며 蹴鞠의 術은 시대와 한가지로 발달하여 滾弄・飛弄等 種類의 名이 있고 그 규칙과 설비도 차차 복잡 周密해진다. 구당서에 고구려의 俗을 記하되 「人能蹴鞠」이라 하였고 三國遺事에 太宗大王이 蹴鞠을 緣으로 하여 度信公 季妹 文姬에 장가드는 艷史를 傳하고 이어 註하여 가로되 「羅人謂蹴鞠爲弄珠之戲」라 하였으니 海東三國에 이 戲가 두루 행하고 신라에서는 「공작난」 비슷하게 稱謂하였음을 알겠다.<sup>14)</sup> 이와같이 蹴鞠은 삼국시대 이래 귀족계급의 武藝練習을 위한 戲였으니 三國遺事의 蹴鞠時 착용했던 春秋公의 袴은 오히려 정확히 표현된 의복명칭이라 하겠다.

이미 三國시대에 우리나라에 성행했던 蹴鞠은 日本의 경우 大和朝로부터 平安, 鎌倉, 室町에 걸친 公卿들사이에 성행하였으며 蹴鞠시의 裝束은 鎌倉초기에는 狩衣를 썼으나 室町시대에 이르러 점차 儀式다운 戲가 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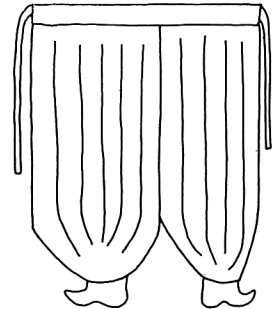


그림 11. 白紬袴 樂學軌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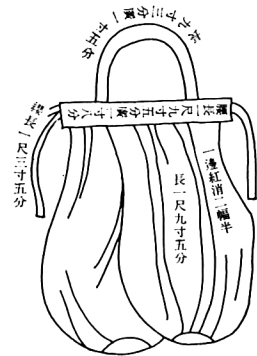


그림 12. 蓮花臺舞服 襪袴 樂學軌範

13) 高福男, 우리나라 民俗舞의 服飾構造에 관한 研究, p. 19

14) 崔南善, 朝鮮常識, 서울, 東明社, 1948, p. 92



그림 13. 指貫袴

그림 14. 紅袴 日本衣服史  
p. 228

에 따라 公卿은<sup>15)</sup> 반드시 直衣를 쓰고 기타 諸家로서는 水干裝束이 가장 널리 사용되었다. 下衣로는 반드시 指貫袴(그림 13)를 通用했으며 입는 방법은 右脚에는 높이 입고 左脚에는 좀 낮추어서 발꿈치가 보일 정도로 아래를 동였다.<sup>15)</sup> 指貫袴는 奴袴로도 통하며 平安朝(9—12C 전반)에 가장 널리 사용된 남자용 袴로 그 제도는 表袴式과 달리 股가 닫히고 그대신 兩脇이 열리고 따라서 腰紐는 전후로 나누어 붙어 있다. 袴의 裾口에 括緒가 통해 있으므로 指貫袴란 명칭이 붙었다. 그런데 新羅의 金春秋가 蹴鞠時着用했던 袴의 모양을 處容冠服의 袴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日本 公卿間에 즐겨 행했던 蹴鞠用 의복인 指貫袴의 着用姿와 羅代의 袴 着用姿는 매우 흡사하여 이 兩者의 의복이 같은 sports wear로서 원래 그 元祖를 하나로 해서 출발하지 않았을까 의심이 간다. 또 이 指貫袴의 制度는 현대 여자 한복의 밑웃인 단속곳과 같은 점이 흥미롭다. 日本의 경우에도 平安朝에 부인 一般이 사용한 下衣로 紅袴(그림 14)가 있는데 指貫袴의 褶이 内部로 꺾여 들어 간데 反하여 이것은 外部에 겹쳐서 나타난 形이다. 이것은 腰廣한 부인 체격에 준한 것이었다. 地合은 주로 生絹을 펼쳐 두드려서 했으며, 色은 紅, 鎌倉 중기로부터 室町에 걸쳐서는 緋가 되어 일명 緋袴 또는 張袴라고도 칭했다. 長 五尺七寸, 紐는 동색이고 長 五尺七寸餘, 幅 五寸 정도의 것인데 右脇은 連하여 一連으로 되어 있다. 이 紅袴의 制는 그 色과 地方의 具合을 제하면 남자용 指貫袴와 흡사하다. 여자의 下衣로서 이 紅袴는 어떠한 地位였을까, 생각컨대 이 부인의 下衣에는 男子의 경우와 같이 禪式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sup>16)</sup> 이와같이 平安朝에 이르러 남녀 모두 단속곳 모양의 指貫袴와 紅袴를 착용하게 되는 데에 의문점을 남겨 둔다. 일본의 平安朝초기에 신라는 眞聖여왕(9C 말)의 실정으로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이때 이미 신라의 국세는 기울어져 있었다. 이때에 일본의 바지는 일본 의복 변천사상 白袴, 表袴 등의 禪式이며 폭 좁은 바지가 갑자기 폭 넓은 단속곳식의 바지로 代替되는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통일신라시대 興德王 服飾禁制(826—836)의 품목에도 女袴가 있음을 볼 때 삼국시대 이래 여자 着袴의 풍습이 遺傳되고 있음을 보며 그 재료로서 罽縠線羅, 縛羅, 野草羅 등 고급견직을 사용했고 金泥까지 올린 것을 보면

15) 永島信子, 전게서, p. 361

16) 上掲書 p. 227



의출복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만한 의복이라 생각된다. 그 형태는 蓮花臺舞服인 襪裙과 같은 것이며 이와같이 화려한 고급 재료의 袴는 조선조까지 전승되어 襪裙이 尊者의 필수품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 신라시대의 袴는 남녀 모두 공통으로 현재의 고장이와 흡사한 襪裙은 입고 있었으며, 동시대에 일본의 남녀 모두 단속곳 모양의 바지를 입었고 우리나라의 부인들이 오늘날까지 이것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건대 그때에도 우리나라에 여자의 단속곳 착용의 풍습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 IV. 結 言

本考는 三國시대로부터 統一新羅까지 착용했던 바지의 명칭을 형태와 용도를 살펴가며 고찰한 것이다.

우리나라 最古의 바지에 관한 기록은 駕洛國記의 인도 公主가 입은 綾袴가 있으며, 三國시대의 바지로는

1. 窮袴, 가랭이 폭이 좁고 襠이 달리고 바지부리가 막힌 바지를 侍者, 武人級이
2. 寬袴, 가랭이 폭이 넓고 바지부리가 막힌 바지를 貫人級, 貴人級이 騎馬時에,
3. 가랭이 폭이 좁은 파자마식을 平居時, 騎馬時, 씨름할 때.
4. 가랭이 폭이 넓은 파자마식(大口袴?)은 使臣들이 착용하여 儀禮用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으며
5. 禪은 壯丁과 力士등이 입고 있다.

이상의 바지는 벽화상에서 볼 때 寬袴를 제외한 모든 바지는 남자용임을 알 수 있다. 이상 5가지 型은 고구려 초기에 이미 國俗化 된 것으로 보며 우리의 고유복이 반드시 北方胡服系라고만은 할 수 없고 일찌기 西域風이 가미된 것으로 추측하며 寬袴의 형태에서 그 흔적을 본다.

우리나라의 바지는 구조상 크게 開股袴와 閉股袴로 양분할 수 있는데 開股袴는 실용성을 고려한 결과 구성된 형태로서 삼국시대 바지류의 開閉여부에 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4.5C경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건너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禪, 白袴, 表袴 등의 구조와 현대까지 착용해온 우리의 잠방이 구조를 참작하면 삼국시대의 禪류, 袴류에도 각각 開閉式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統一新羅時代의 바지에 관한 좋은 자료로 樂學軌範에 신라에 기원을 둔 處容冠服의 裙과 袴의 例가 나와 있다. 兩者를 비교한 결과 裙과 袴의 구조는 대동소이 하나 裙은 袴보다 좀더 儀禮的 용도로 사용된 흔적이 보인다. 三國遺事의 古記事에 金與信이 獻鞠시 밝은 金春秋

의 裙이 곧 樂學軌範의 處容舞服인 裙이다. 裙은 統一新羅代에 남녀 공통으로 사용되었다.

日本の 경우에도 大和朝로부터 蹴鞠이 유행했는데 그 裝束에 指貫袴와 그 밑에 입는 下袴가 있다. 이 指貫袴와 新羅代 裙의 着用姿가 同様이며 또 指貫袴의 制度가 현재 우리 女袴인 단속곳과 닮았다. 同時代 日本 여자들도 단속곳과 同様の 紅袴를 입고 입는 것을 볼 때 兩者間에는 깊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며 오늘까지 한국 부인들이 이것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건대 統一新羅代의 女俗에 단속곳 着用 풍습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분벽화에 보이는 다양한 男袴가 통일신라 이후로부터 고려대까지 그대로 존속되었는지는 의문이며, 조선대에 이르러 男袴는 바지(겹, 홑)와 禪 두가지로만 존재했음에 반해 女袴의 종류는 오히려 속곳, 바지, 단속곳, 너른바지로 分化되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루려 한다.

#### 참 고 문 헌

1. 金東旭, 增補韓國服飾史研究, 亞細亞文化社, 1979.
2. 一然, 三國遺史.
3. 杜佑撰, 通典, 新興書局發行.
4. 李如星, 朝鮮服飾考, 白楊堂, 1947.
5. 原田淑人, 漢六朝の服飾, 東京: 東洋文庫, 昭和12年. (1937)
6. ———, 唐代の服飾, 東京: 東洋文庫, 昭和45年. (1970)
7. 宮本馨太郎, 民俗民藝雙書 V. 24, 居崎美術社, 1975.
8. 永島信子, 日本衣服史, 藝艸堂, 昭和 8年(1933)
9. 崔南善, 朝鮮常識 서울, 東明社, 1948.
10. 成倪, 樂學軌範, 亞細亞文化社, 1975.
11. 鈴木敬三外, 日本の服裝<上>, 東京: 吉川弘文館, 昭和43年. (1968)
12. 李惠求, 安岳第三號墳壁畫의 秦樂圖, 震檀學報 第二十三號.
13. 李京子, 高句麗壁畫服飾의 研究, 梨大論叢.
14. 高福男, 우리나라 民俗舞의 服飾構造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 A Study of Korean Trousers —Styles, Names, and Uses—

This is a study of Korean trousers—styles, names, and uses—covering the period from antiquity until the end of the United Shilla.

KOREAN TROUSERS as depicted on Koguryo wall paintings may be divided into five styles.

- 1) Full trousers (寬袴), gathered at the ankle, for noblemen on riding occasions.
- 2) Tight trousers (窮袴), gathered at the ankle with attached crotch patch(襠), for warriors, riding occasions.
- 3) Full and straight trousers, open at the ankle used by officials on ceremonial occasions.
- 4) Long, straight trousers, open at the ankle, for riding, wrestling, and ordinary occasions.
- 5) Short and narrow trousers (禪) worn by strong men and military-related personnel of common rank.

Of the above styles, style 2 was commonly used by both men and women. All of the styles were Korean patterns from the early Koguryo period. The original Korean costume from northern folk origin is characterized by tubular sleeves and narrow trousers. Style 2 trousers are especially full, baggy, and gathered (possibly) at the ankle. They are different from the original Korean style but display a strong identity with the Iranian trouser fashion. This shows us that Korean fashion was affected by Iranian models early in the ancient time.

Korean trousers may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crotch system, the open crotch and the closed one. The ancient Korean trouser crotch system has not yet been discovered. Presuming that Japanese trousers were influenced by Korean models, it is possible that Japanese trousers were Korean ones. Hence our ancient Korean trousers were the same as Japanese White Trousers (白袴), outer trousers (表袴), and the like with respect to the crotch system.

In the United Shilla period, men and women wore the same type trousers, under the name of *Kun*(裙), unique in style, resembling modern women's traditional underwear (*paji*). Contemporarily Japanese men and women wore the same trousers, *Sashinuki*(指貫) for men, red trousers (緋袴): *Hinohakama* for women (similar to modern Korean women's outer underwear, *Tansoggot*) somewhat different from the afore-mentioned one, *Kun*. Therefore, I suggest that *Tansoggot*-like trousers were probably also used for women in the United Shilla period.